"드디어!" 우여곡절 겪은 김광현, 감격의 빅리그 첫 승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 선발

6이닝 3피안타 무실점…팀의3-0 승리 이끌어

김광현(32 · 세인트루이스)의 메이저리그 데뷔 첫 승리는 우여곡절 끝에 따낸 것이라 더욱 달콤했다.

김광현은 23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쾌투를 선보여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세 번째 등판에서 데뷔 첫 승을 따냈다.

지난 7월25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의 개막전에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 1이닝 2실점(1자책점)을 기록하고 세이브를 수확했던 김광현은 빅리그 첫 선발 등판인 18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투구수 제한 속에 3⅔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5이닝을 채우지 못해 승리는 따내지 못했다.

김광현은 돌고 돌아 메이저리그 첫 승까지 도달했다.

김광현이 처음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던진 것은 2014년이었다. 김광현은 2014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렸다.

그의 첫 번째 메이저리그 진출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김광현 영입 의사를 밝힌 구단 가운데 최고 응찰액을 써낸 구단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였는데, 응찰액이 200만달러에 불과했다.

류현진이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당시 LA 다저스가 써낸 응찰액 2573만7737달러33센트에 10분의1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기대보다 낮은 금액에도 SK 와 이번스는 포스팅을 수용하기로 했고, 김광현은 샌디에이고와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김광현은 결국 계약까지 이르지 못했다.

첫 번째 도전에서 좌절을 겪은 김광현은 2016시즌을 마친 뒤 SK와 4년간 85억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 계약 후에는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도 받았다.

나이가 30대에 들어서고 수술까지 받으면서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진출은 머나먼 이야기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김광현은 어릴적부터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무대를 포기하지 못했다. 그는 2019시즌을 마친 후 다시 빅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팔꿈치 수술로 2017시즌을 통째로 쉰 김광현은 2021시즌까지 SK 선수였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서는 SK의 허락이 필요했다. SK는 고심 끝에 김광현의 미국 진출을 허락했다.

김광현은 지난해 말 세인트루이스와 2년간 최대 1100만달러에 계약하며 '꿈의 무대' 진출을 이뤘다. 보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으로 떠난 김광현은 5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 낯선 환경에서도 김광현은 기분좋은 출발을 했다. 그는 2~3월 치른 시범경기에 4차례 등판해 8이닝을 던지며 무실점을 기록,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김광현이 꿈의 무대에 서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미국 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메이저리그는 3월 중순 진행 중이던 시범경기를 전면 중단했다. 3월말로 예정된 정규시즌 개막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선수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한국으로 일시 귀국해 훈련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김광현은 미국에 남아 훈련을 이어가기로 했다.

가족들과도 떨어진 김광현은 이후 외로움과 싸워야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을 닫는 바람에 김광현의 훈련 환경도 녹록치 않았다.

김광현은 3월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한테만 불행한 것만 같은 시기"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3월까지 스프링캠프지인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에 머물며 훈련을 이어가던 김광현은 4월부터는 세인트루이스로 이동했다. 다행히 세인트루이스에서는 팀 내 베테랑 투수 애덤 웨인라이트와 파트너를 이뤄 훈련할 수 있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빅리그 개막을 기다리던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개막이 7월말 결정되면서 드디어 데뷔를 눈앞에 뒀다.

그러나 김광현은 생소한 자리에서 빅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김광현은 서머 캠프에서도 쾌조의 컨디션을 과시했으나 마무리 투수로 낙점됐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이 22일(현지시간) 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7월말 개막을 앞두고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투수 조던 힉스가 코로나19를 우려해 시즌을 포기했다. 이에 김광현과 5선발 경쟁을 하던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마무리 투수로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마르티네스는 지난해 마무리 투수로 뛴 경험이 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는 마르티네스의 선발 의지를 외면하지 못했고, 마르티네스를 5선발로, 김광현을 마무리 투수로 결정했다.

김광현은 7월25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의 개막전에 마무리 투수로 나섰다. 생소한 위치에서 빅리그 데뷔전을 치른 김광현은 엄청난 긴장감 속에 마운드에 올랐다.

세이브를 수확하기는 했지만 다소 아쉬운 투구를 했다.

데뷔전을 치른 후에도 김광현에게 시련이 이어졌다. 세인트루이스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보름 동안 경기를 치르지 못한 것. 세인트루이스는 선수 10명을 포함해 총 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이 사이 김광현의 보직은 다시 선발로 변경됐다.

김광현은 18일 시카고 컵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꿈에만 그리던 빅리그 첫 선발 등판에 나섰다.

그는 타격 훈련 때 착용하는 모자를 잘못 쓰고 나올 정도로 긴장감 속에 빅리그 선발 데뷔전을 치렀다.

첫 선발 등판 당시 김광현이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김광현의 투구수를 60개 안팎으로 정했다. 시즌 도중 마무리 투수에서 선발로 보직을 바꾼데다 휴식기가 워낙 길었던 탓이다.

그럼에도 김광현은 3⅔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기대를 키웠다. 5일 만인 23일 김광현은 홈 구장에서 데뷔 후 두 번째 선발 등판에 나섰다. 긴장감을 내려놓은 김광현은 한층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며 쾌투를 선보였다.

자신있게 자신의 공을 던지면서 빼어난 투구를 선보인 김광현은 첫 승의 기쁨까지 누렸다.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 거둔 첫 승이라 김광현에게는 한층 의미있었다.

토트넘 손흥민, 프리시즌 첫 연습경기에서 2골 폭발

3부 입스위치에 3-0 완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28)이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리그1(3부리그)의 입스위치 타운과 연습경기에서 두 골을 넣어 토트넘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팀이 1-0으로 앞선 전반 10분, 손흥민의 첫 득점포가 가동됐다. 상대 골키퍼 실책을 델리 알리가 가로채 손흥민에게 패스했고, 손흥민은 침착하게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전반 29분에는 추가골이 터졌다. 후안 포이스의 패스를 받은 손흥

민이 오른발 슈팅으로 골키퍼를 살짝 넘겨 다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을 마치고 교체된 손흥민은 프리시즌 첫 경기부터 멀티골을 기록하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을 높였다.

토트넘은 9월12일 에버턴과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순천대 양궁부 강수빈, '대학양궁선수권대회'서 쾌거

금 2 · 은 1 획득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양궁부는 최근 4일간 광주여대에서 열린 '제23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에서 강수빈 선수(사회체육학과 2년)가 2개 부문 1위와 1개 부문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대학 양궁 최강을 가리는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치러진 마지막 실전대회로 전국 19개 대학 2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컴파운드와 리커브 부문에서 10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띤 경쟁을 벌였다.

순천대 강수빈 선수는 개인전 싱글라운드와 거리별 경기 50M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70M에서도 1점 차이로 아쉽게 2위에 머무르며, 최종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훌륭한 기량을 보여준 강수빈 학생은 "매일 500발씩 화살을 쏘고 시간이 날 때면 개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다."며 "항상 큰 힘이 되어주는 양궁부 팀원들을 비롯해 주변의 격려에 힘입어 국가대표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대 양궁부 감독인 임성호 교수는 "강수빈 선수는 신입생 시절부터 빼어난 실력으로 각종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해 왔을 뿐 아니라, 평소 성실한 모습으로 팀의 분위기를 끌어가는 훌륭한 선수이다.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강수빈 선수는 지난 8일 열린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도 대학부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등 최근 무르익은 기량을 뽐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열리는 국가대표선발전 출전이 확정되면서 태극마크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피스로드 전남대회 '팡파르'…지구촌 통일비젼 알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전 세계인이 함께 달리는 'One Korea 피스로드 2020, 통일대장정' 이 21일 오전 10시 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출발했다.

이 행사는 피스로드 조직위원회,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전남대회는 평화대사협의회, UPF(천주평화연합), YSP(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이 주관하고 통일부, 행정안전부, 전남도,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KBC광주방송, 세계일보가 후원했다.

전남대회에는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 김동연 한국공동실행위원장, 임종혁 호남권실행위원장, 김진휘 · 문재진 · 김정기 전남공동실행위원장, 전남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종주기 전달식과 대회사, 축사, 평화 메시지 낭독, 자전거 출발 순으로 진행된다. 평화의 종주자 80명은 목포 평화 광장을 출발해 현충공원까지 2㎞를 달리면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했다.

이에 앞서 전남에서는 여수시(7월 25일), 함평군(8월 9일), 해남군(8월 15일), 나주시(8월 16일) 등 시 · 군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평화의 여정에 동참했다. 시 · 도 행사 이후에도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오는 29일까지 계속된다.

김동연 한국공동실행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아무리 경색돼도 지구촌 평화이상과 통일비전을 알리려는 참가자들의 열정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이 곧 세계 평화의 초석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김행직-최호일 전국당구대회 캐롬 3쿠션 복식 우승

장문석-서서아 조, 포켓 9볼 복식에서 동메달 획득

김행직-최호일 조가 열 번의 도전 끝에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행직-최호일 조는 지난 20일, 경남 고성에서 열린 제1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및 2020 경남고성군수배 전국당구대회 캐롬 3쿠션 복식에 출전해 홈팀 경남의 허정한-황봉주 조를 30:22(18이닝)로 꺾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준결승전에서 충북의 오성규-강자인 조를 꺾고 올라온 김행직-최호일 조는 5이닝까지 1:8로 끌려갔지만 7이닝에서 김행직의 큐 끝이 살아나며 8:5로 뒤쫓았다.

이후 9이닝에서 10:10 동점을 만든 후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접전 끝에 11이닝에 6점을 몰아치며 16:12로 역전에 성공했다.

그리고 꾸준하게 포인트를 쌓아가며 18이닝만에 30점 매치포인트를 달성해 30:22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그동안 공동 3위만 차지하며 아쉬워했던 김행직-최호일 조는 이번에 팀을 이룬지 10번의 도전 끝에 첫 우승을 차지해 기쁨이 배가 됐다.

한편 포켓 9볼 복식에 출전한 장문석-서서아(전남체육회) 조는 준결승에서 이준호-이우진(강원) 조에게 아쉽게 4:8로 패하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기동취재본부